제19750호

11



1조812

9862

여수·광양항 항만공사 부채 추이

9119





24열 크레인은? 컨테이너를 줄지어 쌓아 놓은 상태 에서 몇 번째(열)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에 따라 22열·24열 크레인으로 나눠진다. 크레인이 먼 곳에 놓인 컨테이너까지 들 어올릴 수 있으면 그만큼 작업 속도가 빨 2012 2013 올해목표 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광양

'한국 항만 물류의 중심' 여수광양항만 공사가 광양항을 중심으로 남해안 시대의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반면,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현재 광양항의 18~22열 크레인을 24열 크레인으로의 교체해야 하는 등 풀어 야 숙제도 있다.

◇물동량 증가로 올해 목표 무난히 달 성 예상=지난 2011년 8월 항만시설의 개 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 을 높이고, 여수항과 광양항을 경쟁력 있 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설 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가 출범 3년째를 맞았다.

항만공사 출범 후 꾸준히 물동량이 증 가하고 있다. 여수·광양항의 총 물동량은 2010년 2억1652만t, 2011년 2억3369만t, 2012년 2억4247만t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세계 경기위축 등의 여파로 인해 2억4058 만t으로 약간 주춤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0년 207만3000 TEU에서 2011년 208만5000TEU, 2012 년 215만4000TEU에 이어 2013년에는 228만5000TEU로 증가세에 있다.

올해도 지난달 현재 총 물동량은 전년 동 기 5.4% 늘어난 8036만t을 처리했으며, 컨 테이너 물동량은 같은 기간 11.6%가 증가 한 79만6900TEU를 달성했다. 항만공사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목표인 총 물동량 2 억5400만t과 컨테이너 물동량 242만TEU 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부채 축소, 방만 경영 해소=올 들어 공공기관의 최대 이슈는 '방만 경영 해소'와 '부채 감소'다.

지난 2011년 1조812억원의 금융부채를

물동량 꾸준히 증가 부채 줄이고 효율 경영 물류 허브항 도약 위해 24열 대형크레인 도입 시급

떠안고 출범한 항만공사는 출자회사 지분 매각, 항만수입 증대,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부채 규모를 모범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항만공사는 출범 이후 금융부채 규모를 2011년 9862억원, 2012년 9119억원, 2013 년 8410억원으로 줄였으며 올해는 6990억 원을 목표로 부채 감소에 몰두하고 있다.

◇광양항 활성화, 정부 지원이 관건= 컨테이너 300만TEU 조기 달성을 위해서 는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

광양항의 산적한 현안사업 중 하나인 광 양항 컨테이너 크레인(24열 사진)의 대형화 교체 지원 사업을 광양시가 정부에 건의했 다. 출범 당시 부채를 안고 시작한 항만공 사의 재정형편이나 운영사들의 수익 구조 등이 열악한 상태에서 120억원에 달하는 24열 크레인 교체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또 준공한 지 40년이 지난 낙포부두의 경우 정부가 2010년 정부사업으로 재개발 을 확정했으나 아직까지 개발은 되지 않고

한편 김영록 국회의원은 지난 2월 해양 수산부를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정부 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다면 당초 확정안 대로 낙포부두 재개발 사업비 2370억원 전 액을 정부 재정으로 조속히 시행해야 한 다"고 촉구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컨테이너 부두.

광양시 민원처리 속도 대폭 빨라져

광양시(시장 이성웅)의 민원처리 속 도가 대폭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 월까지 접수된 민원처리 상황을 분석한 결과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 4607 건의 법정 처리기간 합계가 7만3726일 이지만 실제 처리기간 합계는 2만112일 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로 설정한 단축 률(62%)을 뛰어 넘어 72.7%의 단축률 을 달성한 것이다.

지난 4월까지 시에 접수된 민원 1만73 건 가운데 9539건(94.7%)은 처리됐고, 진행 중인 민원은 352건(3.5%)이다.

이러한 성과는 시가 그동안 시민중심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 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및 기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부서 협 업, 민원인 제출서류 최소화, 민원접수 시 처리기간 사전 안내, 복합민원 사전 심사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민원조정 위원회 및 실무 종합심의회 운영, 365 무 인 민원발급센터 운영 등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민원(민원 24) 이용 활성화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소통민원 창 구를 운영해 온라인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경찰서(서장 장효식)는 최 광양경찰서 '선샤인 상담소' 호응 근 관내 중·고등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과 진로 · 고민 상담 등 맞춤형 종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선샤인 상담소'를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다압면에 대규모 자연휴양림…캠핑 애호가들 관심

'느랭이골 자연리조트' 문열어 내달 2일 시민들에 무료개방

광양시 다압면에 캠핑과 휴양을 접목 시킨 대규모 자연휴양림이 조성돼 캠핑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일원에 위치한 '느랭이골 자연리조트'는 최근 문을 열 고 6월 2일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 행사

자연휴양림은 삼림욕장과 신비의 '글 램핑'(glamping)장, 테마정원, 야외 수 영장, 산책로, 트래킹 코스, 물고기 정원 등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글램 핑'은 화려하다(glamorous)와 캠핑 (camping)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필 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

하게 즐기는 캠핑을 의미한다.

글램핑장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 는 편의장비를 비롯해 온수가 나오는 샤 워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 대자연 의 품안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neuraengigol.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느랭이골 자연리조트 관계자는 "이번 무료 개방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천혜의 자연속에서 치유의 기운을 느끼 며 잠시나마 재충전의 시간을 갖길 바란 다"고 말했다. 문의(061-772-2255)

한편 '느랭이'는 암고라니 또는 암노 루를 부르는 호남지방의 사투리이다.

휴양림이 위치한 골짜기가 완만한 선 을 그리며 길게 늘어진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 이런 이름을 얻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